정읍시 반려동물 사료산업 집중 육성

건초·주사료·간식 등 개발·판매
청아농장 시범 농가 선정
생산시설·제품개발 컨설팅 지원

정읍시가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펫푸드(Pet Food) 산업 연구·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에 살고 있는 반려동물 수는 약 2만7000여 마리로 추정되고, 사료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1조3000억원에 도달하는 등 매년 10%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고품질 사료 생산 전문가공업체 육성을 목표로 '청아농장'을 시범 농가로 선정하고 생산·가공시설과 제품개발 컨설팅을 지원했다.

청아농장은 애완동물 가운데 토끼와 기니피그를 주 타깃으로 국내산 건초(티모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주사료(펠렛, 트리멜로), 간식(건과일, 건야채, 씨앗 등)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기존의 수입 제품이 주를 이루던 건초와 사료 시장에서 원료부터 가공까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함으로써 반려동물 주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아농장 직원들이 애완동물을 위한 국내산 건초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특히 사료작물 생산을 위한 하우스와 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해 건초생산량이 약 2배가량 늘었으며, 장기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수입 제품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청아농장은 지난해 4억7000여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발전을 거듭해 올해는 20% 매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변화에 맞춰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희귀 '댕구알버섯' 남원 사과밭서 8년째 나와

2014년 이후 20여개 채취

세계적 희귀종으로 알려진 댕구알버섯이 남원시 지리산 자락의 과수원에서 8년 연속 나왔다.

남원시에 따르면 산내면 입석마을 주지환(58)씨 사과밭에서 최근 댕구알버섯 1개가 발견됐다.

지름 25cm가량의 둥근 공 모양이며 흰색을 띠고 있다.

주씨는 "일주일쯤 전에 어린이 주먹만 한 크기였을 때 발견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고, 최근 더는 크지 않아 채취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지난달 초에도 지름 10㎝가량의 댕구알버섯 1개를 이 과수원에서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 곳에서는 2014년 댕구알버섯이 처음 발견된 이후 해마다 나오고 있다.

첫해에 2개, 2015년 2개, 2016년 8개, 2017년 2개, 2018년 3개, 2019년 1개, 2000년 1개 등 지금까지 모두 20여개가 채취됐다.

전문가들은 이 과수원에 댕구알버섯 균사가 남아 있다가 매년 여름과 가을에 생육 조건이 갖춰지면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댕구알버섯은 여름과 가을에 유기질이 많은 대나무밭이나 풀밭, 잡목림 등에서 발생하며 지혈이나 해독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남원 운봉읍 화신마을의 사과 농장에서 7개의 댕구알버섯이 나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지리산 입석마을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주지환씨가 지신의 사과밭에서 발견한 '댕구알버섯'을 들어보이고 있다.

고창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기금 완료…2억6415만원 모아

1년간 전국서 4만8310명 참여
당초 목표액 두 배 이상 모금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고창에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세우는 범국민 모금운동이 당초 목표액의 두 배 이상을 훌쩍 넘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공동위원장 진윤식·정남기)은 동상 건립 성금 모금을 지난 15일 마감한 결과 1년간 펼쳐진 모금운동에 전국에서 4만8310명이 참여해 총 2억6415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모금운동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비롯한 고창군민과 사회단체는 물론, 출향인, 중소기업, 일반 국민들까지 적극 동참해 당초 모금목표액인 1억원을 훌쩍 넘기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정남기 공동위원장은 "전봉준장군 동상건립에 보여주신 전국민의 열정과 정성에 감동했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된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로서 고창만의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건립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이견이 있어 동상건립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뜻과 전봉준장군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동상건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1년간 의향정신을 살린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준 국민들과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동상건립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고창의 위상을 높이고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을 넘어 한국사에 빛나는 세계속의 혁명으로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전북도기념물 제146호로 고창 전봉준 생가터가 지정됐고, 무장기포지 역시 문화재청 심사를 기다리며 명실상부한 '동학농민혁명 성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각종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순창 발효테마파크 전경.

순창 발효테마파크 비전 상징 로고 공모전

지역 제한 없이 10월6일까지 접수

순창의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단 '로고 공모전'을 개최한다.

발효테마파크재단(원장 김재건)은 지난 6월 본격 출범한 재단의 비전과 가치를 상징하면서 순창의 문화·관광 진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창의적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오는 10월6일까지 '로고(CI) 공모전'을 연다.

공모전은 지역이나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 기간한 내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부문은 심볼마크, 워드마크, 시그니처 등 3가지이며 각 부문마다 최우수상(상금 300만원)과 우수상(상금 50만원)을 선정해 시상하게 된다.

발효테마파크재단은 미래 순창의 핵심분야 발효를 테마로 한 투자선도지구 내 관광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출범한 법인이다.

푸드사이언스관을 포함해 투자선도지구 내 12개 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지난 7월 순창군의회를 통과하면서 관광시설 운영을 위한 재단의 운영체계가 갖춰지고 있다.

발효테마파크 내에 첫번째로 문을 연 푸드사이언스관은 개관 첫달 3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지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개관 2개월만에 방문객 6000명을 넘어섰다.

이어 여름 휴가철인 8월에는 입장객 1만명을 돌파하며 순창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푸드사이언스관 외에도 연말이면 다년생식물원과 미생물뮤지엄이 들어서고 2022년에는 발효테라피센터, 세대통합형 실내놀이시설 등이 문을 열 예정이다.

김재건 발효테마파크재단 원장은 "내년 정식 개관을 앞둔 발효테마파크의 비전과 가치를 담아낼 CI 공모전 개최로 함께 만들어가는 발효테마파크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군산시 도심 방치 공간에 녹색 쉼터 조성

수송동·금암동 부지 2곳

군산시가 도심속 방치된 공간을 녹색 쉼터로 조성한다.

군산시는 수송동 새들근린공원 일대와 금암동 폐철도 부지 2곳을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수송동 예술의전당 인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새들근린공원 일원과 금암동 공설시장 옆 폐철도 부지는 장기간 방치돼 불법 경작과 폐기물 투기 등으로 인해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들근린공원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국비 29억원 등 총 58억원이 투입돼 치유의 숲, 바람길 숲, 화목원, 잔디마당, 생태놀이터 등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심 녹지공간인 '새들허브 숲'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금암동 공설시장 옆 폐철도부지도 내년 상반기에 국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이 투입돼 도시 숲과 산책길, 정원 등을 갖춘 '에코레일파크'가 조성된다.

특히, 이곳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시장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에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심문태 군산시 산림녹지과장은 "미세먼지 차단 숲이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한여름 열대야를 줄이고 각종 소음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 · 고객 ·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 · 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굿 건강보험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 · 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치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